

人間學의 對象과 그 本質的 制限 (3)

金基錫

우리들은 앞에서 人間의 生活이란 것이 存在에 대한 人間의 交渉에 있어서 構成된다는 것을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歷史란 것은 이 存在에 대한 人間의 交渉으로서의 한 개 現實的 聯關의 橫斷面, 사람들이 말하는 社會란 것은 그것의 橫斷面 가튼 것이 아닐가. 人間과 環境과의 부단한 相互限定. 人間이 업는대로 自然만 이잇슬 수 는 잇다. 한 개 빗나는 秩序를 일허버린 존재의 世界란 것이 잇슬 수 는 잇다. 이 人間을 잃은 存在의 世界에 잇서서도 그 속에 依然히 流動이 잇고, 轉變이 잇고, 그리하여 依然히 한 개 久遠한 生成이 훌으게 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미 그것과 마주서는 人間이 업스때, 이 『어두운』 存在의 世界는 그것이 人間의 環境 가튼 意味를 가지지 못한다. 말하자면 主體업는 客體의 世界, 따라서 그 자신 客體의 意味를 □ 矢한 단순한 世界로 남겨 잇게 된다. 그것은 아직 存在의 世界로서의 權利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現實的 世界로서의 歷史的 社會的 實在의 世界로서의 資格을 가지지 못한다.

歷史的 社會的 實在의 世界. 이것만이 行爲의 世界 體驗의 世界를 創造한다. 이것만이 實在의 學, 現實의 學으로서의 哲學에 대한 眞實한 地盤을 構成한다. 진실한 意味의 現實的 世界는 人間에게 주어지는 世界가 되어야 한다. 人間을 그 속에 가지고 人間의 環境을 그 속에 가지는 世界가 되어야 한다. 現實世界에 대한 根源的 解□. 이것이 哲學의 眞實한 또 久遠한 課題가 아닐가.

哲學은 그 자신의 地盤을 가진다. 이 哲學의 地盤으로서의 人間 또는 現實에 대한 基本理解 한태서 哲學은 다른 모든 學問에 대하여 자기를 地盤으로, 哲學자신의 地盤인 人間 및 現實에 대하여 그 자신을 學問으로 主張한다.

철학은 어떻게 하여서 이 人間을 主體로 하는 한 개 巨大한 現實世界를 理解하게 될 것인가. 人間의 『生』은 단순한 思惟에 그치는 것은 안이다. 그것

은 思惟이기 전에 먼저 한 개 運動이 안이면 안된다. 그러나 人間이 가지는 또 보이는 運動은 어디까지던지 어떤 主體의 表現으로서의 行動 또는 實踐 가튼 意味를 가지지 안허서는 안된다. 思惟와 實踐의 聯關. 이것이 人間生活의 眞實한 創造가 안일가. 그런데 思惟와 實踐은 다시 어떤 具體的 地盤을 가져야 한다. 이 具體的 地盤이란 것이 압서 말한 『體驗의 潮流』가튼 것이 안일가. 行爲의 世界體驗의 世界야 말로 歷史的, 社會的, 實在로서의 人間의 根本現實이 안이면 안된다.

哲學은 그것이 이 人間 또는 現實의 自己反省이면서 겸하여 그 자신 한 개 『生』이요, 運動이다. 哲學은 단순한 思惟에 그치지 않는다. 哲學은 걸은 實踐에 나서지는 않는다. 哲學은 이 思惟 및 實踐의 뒤에서 그것을 길러 나아가는 理解, 體驗 가튼 意味를 가지지 안허서는 안된다.

人間은 思惟에 잇서서 存在를 어느 程度까지 把捉한다. 人間은 實踐에 잇서 事實을 어느 程度까지 經驗한다. 그러나 思惟를 단순한 觀想으로 부터 實踐을 그릇된 運動으로 부터 □□하는 것은 오로지 理解, 體驗이 안이면 안된다. 理解와 體驗. 이것은 『生』의 根本現實이요, 나아가 哲學의 眞實한 原野를 마련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人間의 現實에 뿌리 박은 哲學의 久遠한 前途를 바라본다. 哲學은 超越的인 實在를 想定하는 그릇된 傳統에서 자기 를解放 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哲學은 意□ 또는 認識만을 論□하는 그 자신의 구차스러운 限界에서 離□ 되지 안허서는 안된다. 이리하여 『生』의 原野, 實在의 原野에서 現實的 世界에 대한 解明을 課題로 하면서 기운차게 달리라.

形而上學에서 버서난 現實의 學. 認識論에서 풀어져 나온 理解의 學. 體驗의 學. 여기에서 우리들은 明日의 哲學의 우렁찬 □生을 외오는 것이 아닐가. 그리고 希□的 思惟에서 길리여 中世의 오랜□□을 지나 獨逸의 理性主義에 이른 人間의 思惟가 오늘에 미쳐 한 개 새로운 意圖와 反省 아래서 그 자신의 □渾한 體系를 세우는 것을 멀리 울어러 보게 되 는것이 안일가.